

희미한 옛길, 사람과 사유가 공존하는 곳에서의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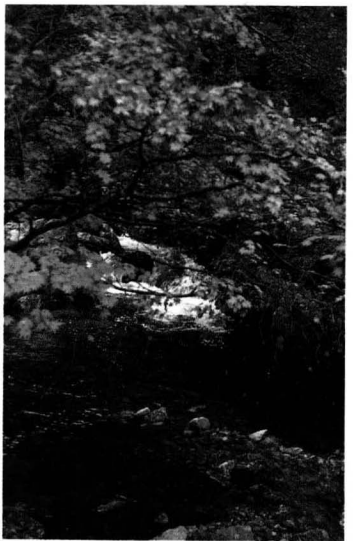
‘옛길’을 밟는다. 머무는 사람에게는 제한된 풍경만이 주어 지지만 발을 움직여 길을 찾는 사람 앞에는 살아 있는 풍경들이 불쑥불쑥 얼굴을 내민다. 특히 길이와 깊이를 짚 수 없는 옛길 위에서 그 풍경을 마주하면 매순간 다양한 사유들이 쏟아져 나온다. 깊은 산중에서 펼쳐지는 사유의 축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산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옛길을 밟으면 밟을수록 그 사유는 확장된다. 그러므로 ‘옛길’로의 잠입은 ‘옛’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이다.

— 연극평론가 안치운 씨에게도 ‘옛길’은 역사 사유의 공간이다. 그에게 ‘옛길’은 두 개의 존재, 상처를 치유해 준 은인이면서 삶의 겸손함을 가르쳐 준 스승이다. 그는 ‘더럽고 암울했던 1970년대 중반 대학시절’ 도망가는 심정으로 강원도 오지로 떠났던 경험이 있다. 이것이 그 뒤로도 계속된 ‘옛길 찾기’의 단서가 됐다. 그 발길들에서의 사유를 글로 담아 낸 것이 《옛길》(학교재)이다. 1999년에 나온 《옛길》의 개정판 《그리움으로 걷는 옛길》(디새집)의 의미는 그래서 새롭고 귀하다.

가을. 안치운 씨의 걸음을 좇아 강원도 현리로 떠난다. 방태산을 둘러싼 길 대골과 아침가리. 울긋불긋 홍조를 띤 가을의 방태산은 길을 감추고 큰 숲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길은 제멋대로 나 있다. 길과 빛깔로만 제 뜻을 표현할 뿐 산과 숲은 말을 아낀다. 누군가 뒤를 쫓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움에 뒤를 돌아보면 바람의 자취만 남아 있다.

“깊은 산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희미한 옛길이다. 길옆에 숲과 나무가 있고, 길 끝에 집과 사람이 있다. 옛길은 굽은 길이므로 한없이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이다. 내밀한 공간으로 이끄는, 깊이를 짚 수 없는 아득한 길이다.”

대골은 방태산이 지닌 여러 골 가운데 하나. 큰 학이 살았다 해서 과거 대학(大鶴)으로 불렸던 이곳에는 학 대신 산다람쥐와 가을의 풍경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하나둘 지상을 덮는다. 그 위로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모험의 길이 펼쳐진다. 신선이 내려와 장난처럼 만들어놓은 대골의 옛길을 찾는 일은 ‘보물찾기’와 같다. 누군가 가 본 길, 포장된 길만을 걸었던 이들에게 옛길은 새로운 세상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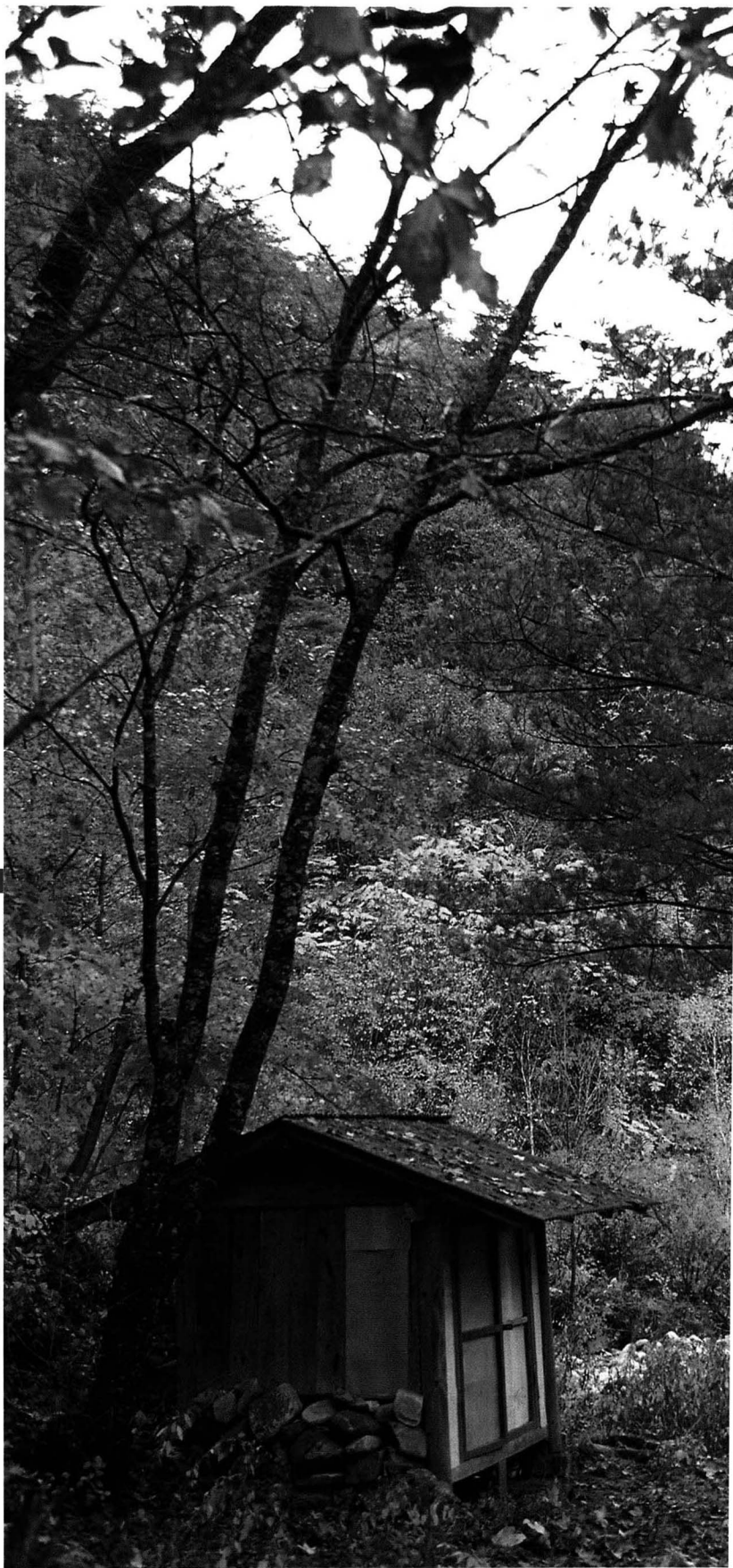
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문을 들어서야 진정한 옛길을 걸었다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길과 산을 오지(奧地)라 부른다. 사실 '오지(奧地)' 보다는 '두메' 가 더 잘 어울리지만 말이다.

눈을 감으면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에서 황폐한 고원에 나무를 심었던 엘지아 부피에가 보인다. 신성(神聖)으로 불리는 부피에가 일귀농은 프로방스 지방의 엄청난 숲을 두메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좋을지, 이 옛길의 끝에서 한국의 엘지아 부피에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본다. 내기하듯 '이 길', '저 길' 을 기념해 보다가 그 중 한 길을 택한다. "다시 내려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곳에는 길이 없거든요. 만약 들어갔다 해도 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곳 토박이 주민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하다. 그렇지만 보물찾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잘못 택했다 하더라도 길은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다는 말을 떠올리며 발을 내딛는다. 가을 산 속의 옛길에게 손과 발, 시선 그리고 마음을 모두 내준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 오지가 있을까? 이 땅에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구별은 불가능해졌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지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장소를 초월한 투명한 공간이라고. 그러므로 오지는 다녀왔다는 오만한 기억을 가져다주는 곳이 아니라 그 장소에 젖어들어 호흡하는 곳이다. 오지를 점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를 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지, 아니 두메의 뚜껑을 연다. 장소를 초월한 투명한 공간. 심연에 숨은 듯 굵이 굵이 깊숙하게 숨어든 숲을 만나면 정말 길을 잃게 될까 두렵다. 안씨의 말대로 숲은 사람을 간히게 하는 어둠을 뿜어낸다. 그러나 숲에서 잃는 것은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말을 금세 실감한다.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견디고 있는 무서움의 시작"이라는 릴케의 말도 함께.

"산에 흐르는 물을 산삼 썩은 물이라고들 하지만 대골의 지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마시지 않으면 억울하고 들고 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물이다. 퍼먹어도 줄어든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물이다. 샘은 물을 푸지 않으면 말라 버리지만,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은 멈춤이 없다.(중략) 아침가리는 진동리 갈터에서 아침가리 계곡을 따라 올라가야 제맛이 난다."





이제 골짜기를 만난다. 아침가리를 만나 계곡에서 갈증을 푼다. 그곳은 조선 후기 가난했던 백성들과 지식인들의 은둔지 중 하나로, 계곡 가운데 있는 널따란 터다. 돌벽에 붙어 벽화를 이룬 나뭇잎들이 옛길 찾는 이를 반기는 걸 보며 이 두메에 사람이 살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는다. 아쉽게도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곳, 아주 깊숙이 간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이곳에 숨어들었던 이들은 이제 여기 없다. 안치운 씨의 책을 다시 펼치며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자연을 닮아간다는 그들을 다시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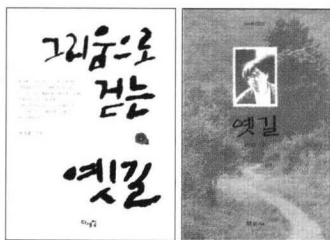
“이규만 씨는 토종벌을 치고 있었고, 산에 올라 캔 약초나 영지버섯 등을 현리장에 내다 팔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산으로 돌아왔다. 그의 바람은 비록 성근 살림살이지만 산에서 사는 법을 배워 자급자족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었다.”

이규만 씨는 없지만 엘지아 부피에를 닮은 아침가리 사람을 만났다. 서울에서 내려와 아침가리에 터를 잡았다는 민경운 씨는 어딜 봐도 현리 방동리 사람이다. 농사를 짓고 나무 이름, 꽃이름을 부르며 방태산과 속삭이면서 욕심들을 하나씩 버려나갔다는 그는 자연처럼 서두르지 않고 옛길을 설명한다. 그를 보며 “이런 오지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의문을 갖다가 “옛 길의 끝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린다. 이제야 ‘옛길’ 끝에 숨겨진 보물을 찾은 것 같다.

— 왔던 길을 되돌아본다. 천천히 걷다가 어둠을 만나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눈에 제대로 넣지 못하고 흘려보낸 풍경들이 아쉬워 다시, 방태산 줄기를 바라본다. 길과 나무, 숲, 산은 여전히 말을 아낀다. 대신 몸 둘레에 비구름을 두르고 속내를 슬쩍 드러낸다. 가을산에 비가 내릴 것 같은 분위기가 완연하다.

다시 서울이다. 현리의 방태산 대골과 아침가리에 이은 옛길, 그리고 사람, 안치운 씨의 문자를 벗삼아 찾은 사유의 대상들도 얼마간 서울에 묻어왔다. 그 흔적들에게 묻는다. 그곳에 다시 가면 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지... 한낱 꿈처럼, 신화처럼 아득한 그곳. 우리가 정말 그곳에 갔던 것일까? 정말 옛길을 연 것일까? 옛길의 흔적이 점점 열리고 있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그리움으로 걷는 옛길》
안치운 지음 | 유동영 사진 | 열림원 | 384쪽 | 값 16,500원
《옛길》
안치운 지음 | 학교재 | 248쪽 | 값 9,000원

연극평론가 안치운의 여행에세이 《옛길》은 1999년 학교재에서 출간되었고, 올해 디새집에서 《그리움으로 걷는 옛길》이라는 제목으로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강원도와 경기도에만 치중된 글을 수정하였고, 우리나라 산과 오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첨부되었다.